

조선대, 지역사회 우주산업 선도한다

'스페이스랩 우주기술연구소' 개소 우주전문 인재양성·미래 기술 선도

조선대학교는 2018년 호남 최초 큐브위성 발사에 이어 2021년 실험 큐브위성 발사에 참여하는 등 우주항공 기술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대로서 유일하게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관측임무 위성을 탑재하고 교신에도 성공해 지역과 대학 위상을 높였다. 현재 박설현 교수는 내년 5월로 예정된 큐브위성 2호 제작에 참여하는 등 국내외에서 연구·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조선대는 최근 대학 우주항공공학과와 해오름관에서 '스페이스랩(SPACE LAB) 우주기술연구소' (이하 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다. 연구소는 우주항공 신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조선대 부설연구기관이다. 그동안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우주기술을 한 차원 더 높게 끌어올릴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선대는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우주기술연구소를 보유하고 됐다.

우주기술연구소를 이끌어갈 소장에는 김태규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선임됐다. 임기는 2025년 1월까지다.

포항 출신인 김 소장은 한국항공대 항공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9년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임용돼 현재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소는 앞으로 우주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학



조선대학교 SPACE LAB 우주기술연구소 개소식이 최근 조선대 우주항공공학과와 해오름관에서 열렸다. 민영돈 총장 등 참석자들이 개소를 축하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술사업, 산학연 기반 우주국방 사업을 추진하는 국방 및 산학연 연계사업, 선진 우주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조선대는 우주기술연구소 개소를 시작으로 우리 독자위성인 우주부품궤도 시험용 초소형 위성을 개발, 발사하는 우주산업기술센터(2026년 예정)를 설립하고, 오는 2030년경에는 우주 국방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연구기관인 우주국방연구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주기술 관련 신사업 발굴, 전문인력 양성, 우주 자주국방 등 한국 우주항공산업 발전에도 기여한다.

뉴페이스시대를 위한 3대 중점사업도 비전에 포함돼 있다.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사업'을 추진해 산업혁신인재, 국방우주전문인력, 과학기술인재 등을 양성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우주국방연구센터를 설립해 국방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우주자산 보호 기술, 우주 통신기술, 위험물체 감지 및 처리 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선도적인 우주탐사기술개발을 위한 우주탐사연구센터 설립, 달과 심우주를 탐사하고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초고속 우주 인터넷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복안이다.

민영돈 조선대 총장은 "광주시와 함께 지역 산학연과 협력하여 광주시 독자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전남도와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조선대학교 우주기술연구소가 명실상부 뉴페이스, 우주국방, 선진 우주기술을 선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우주산업을 선도하는 연구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2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육부와 시범 늘봄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컨설팅을 가졌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수업 전후 안심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

전남도교육청, 늘봄 시범학교 43개교·교육지원청 4곳 지정

교육부의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에 선정된 전남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늘봄학교의 효과적인 모델 개발을 위해 시범학교 43개교와 시범교육지원청 4곳을 지정, 새학기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시범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 지정은 해당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시범교육지원청은 목표와 여수, 순천, 해남교육지원청 등이다.

교육부 공모에서 지난 1월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된 전남도교육청은 지역 특성을 고려, 도시형과 농어촌형으로 나눠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학교의 에듀케어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도시형은 돌봄 미수용 학생 수용, 농어촌형은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이에 앞서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2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육부와 시범 늘봄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늘봄학교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와 상호 협의를 위해 마련된 이날 컨설팅에서는 교육(지원)청과 학교간의 역할과 시범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재기 전남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질을 제고하는 과제로 판단된다"며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단일학교형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실현

'광산교육진흥 TF 협의회'

과밀학급 해소·고교 신설 등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광산교육진흥 TF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산교육진흥 TF는 자치구와 협력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실현과 광산교육 진흥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교육청 실무자들과 광주시 의원, 광산구 의원, 광산구청, 마을활동가, 교원단체 등 내외부 위원 24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광산교육지원청 복원 ▲광산구 과밀학급해소 및 고등학교 신설 ▲다목적센터(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지역 내 통합 돌봄 환경 연계 방안 ▲온마을 이음학교 활성화 방안 등 광산교육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에 참석한 광산구청 관계자는 "광산교육 현안에 대해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인사들이 모여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교육청과 꾸준히 소통해 지역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TF 단장 최영순 정책국장은 "과밀학급, 고등학교 신설 등 광산지역의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들이 많다"며 "시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광산지역의 교육 효과를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모든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한다

전남도교육청, 영산강 프로젝트 운영·탄소중립 선도학교 공모

2023학년도 새학기부터 전남 지역 모든 학교에서 '기후변화 환경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지역의 모든 학교가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생태시민 역량을 기르기 위한 실천활동으로 '공생의 물길 영산강 프로젝트'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당 100만~200만원의 환경교육 운영비와 교원 및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컨설팅을 지원한다.

환경교육 기관과 전남지역 환경기관·단체 프로그램 종합 정보, 환경교육 개발 자료도 제공한다.

학교 탄소중립 실천문화 조성과 우수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탄소중립 선도학교' 51개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해 1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교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학교 구성원 역량 강화, 실천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각 학교들이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공생의 물길 영산강 프로젝트'를 새롭게 운영한다. 영산강을 중심으로 내 고장의 생태 탐구, 실천활동 등을 진행하고 영산강 디지털 생태탐사 지도를 구축한다.

전남교육공동체의 탄소중립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지구(9)하는 학교(기관)'를 운영하고 '빈 교실 불끄고 적정온도 유지', '물 받아 쓰기' '월 1회 메일함 비우기', '다화용컵 사용하기' 등의 활동을 펼친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자연과의 공생이 기본이다"며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교육을 의무화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튼튼한 지킴이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